

#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 제2도서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리모델링 공사기간 2013. 7. ~ 2013. 12.



• 제2도서관 1층 로비 투시도



### 제2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대체열람실 확보 현황 (2013. 6. 현재)

제1도서관 추가 좌석수 **446**석

10개 단과대학 **1,499**석

단과대학명	좌석수	단과대학명	좌석수
인문대학	314	약학대학	218
자연과학대학	467	생활환경대학	42
공과대학	80	예술대학	72
경제통상대학	306	사회과학대학	-
경영대학	-	사범대학	-

※ 열람실 위치, 활용가능시간 등 세부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공지사항 참조

### 제2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휴관 안내

7. 1. ~ 제2도서관 자료실 휴실  
자료이관 및 기자재 이동으로 보존서고 자료 대출 불가

7. 15. ~ 공사완료 시까지 제2도서관 완전 휴관

문의 | 도서관 기획전산팀 최말희 051-510-1820



\* 이 지면은 향후 도서관 발전기금을 출연한 개인이나 기관을 위한 광고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전산팀 담당자(051-510-1810)에게 문의 바랍니다.

## 똑똑, 문을 열다

효원 감동나눔 책읽기

효원인 추천도서 전시 '효원 감동나눔 책읽기'가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제1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12-13쪽)



## C O N T E N T S

- 04 칼럼 나와 구 도서관
- 06 특집 카피라이터 정철과의 특별한 만남!
- 08 도서관, 길을 찾다 도서관을 열어나가는 사람들  
대출도서 기한 전 반납(리콜제)
- 10 도서관, 서가를 들여다보다 국제기구와 국제법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본다
- 12 도서관, 책을 이야기하다 효원 감동나눔 책읽기
- 14 시선집중
- 15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재환 발행일 2013. 6. 18.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510-1800 | <http://pulip.pusan.ac.kr>  
편집 부산대학교도서관 기획전산팀 | 051-510-1810 | [library@pusan.ac.kr](mailto:library@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 051-248-1513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소식과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효원in도서관>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효원in도서관>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도서관 블로그(<http://pnulib.tistory.com>)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나와 구 도서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수직·수평, 3차원 운동에서 내려티브한 것까지  
일순간에 보이는 것은 내가 눈이 열린 것일까?  
그가 성장한 것일까?  
그는 나에게 사물이 담혀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구 도서관(이하 '그'로 표기)은 더 이상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이미 망자가 된 까닭이다. 졸업 후 그를 다시 본 것이 25, 6년쯤 지나서 내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다시 귀국했을 때 즈음이었을 것이다. 그 때 나를 힐끗 보던 그 속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많은 것들을 빠져 아직도 나의 뇌리에 남아 있다. 허나 나는 그와 정답을 나누지 못한 채 떠났다. 나의 일이 바빠서 그 후 그를 만나지 못했다. 다시 이 학교에 돌아왔을 때가 2000년 3월이었다.

그날 이후 그를 대면하길 갈망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내가 시간을 허비해가면서 그를 만나고 할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한 다 할 정도로 그에게 냉담했다. 구태여 그를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를 만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던 중 어느 날 나는 깜짝 놀랐다. 건설관 신축을 위해 그를 제거할 계획이 건축, 토목, 도시, 본부시설과에 의하여 진행 중임을 어느 날 알았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혹시나 했다. 인문관을 철거하려다 학계, 시민단체 등이 들고 일어나서 리모델링한 것처럼 그도 그 정도의 가치이상일 것이다 생각했다. 사람들은 냉혹했다.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만 불티나게 팔리는 이즈음 사람들은 유명건축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구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학교 교수를 지냈던 고인 도영주와 조성기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그들이 유명건축가가 아님을 이유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결국은 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의 자리 위 9층에 나의 연구실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다.

그가 헐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구명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볼 때 별로 이문이 남을 게 없었다. 제1공학관은 이미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철거 대상에 들어 있는데다가 건축학과도 1공학관의 노후화로 수업에 차질이 있을 정도였다. 내가 보기에다 건물을 신축하여 이사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알팍한 손익계산서에 따라 나는 입을 다물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나의 마지막 '환대'였다.

그를 만난 것은 내가 처음 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 아마 1974년 3월 2일이었을 거다. 나를 가장 반가이 맞아주던 이가 있었다. 다른 것들은 다 등을 돌렸는데 그는 뭔가 달랐다. 머리에 시계를 차고 있는 창백한 얼굴을 지닌 그였다. 무척이나 까다로워 보이는 전체적인 인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금에서야 말인데 그가 위치했던 곳이 아마도 구 총장공관, 지금의 인문학 연구소 바로 앞, 현 건설관 자리에 앉아 있던 이가 그였다. 그는 우리학교에 있는 건물 가운데 가장 귀족이었다. 군계일학이었다. 빼어난 프로포션에 우아한 자태는 눈부셨다. 1960년대에 저 정도의 건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탁월한 모습을 갖춘 그였다. 정면에서 본 모습을 보면 지금의 인문관과는 대조적으로 꼭면은 전혀 갖지 않고 반듯한 직선들로만 이루어진 보석이었다. 그런데 그가 지니고 있는 수직·수평선은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위와 잘 어울렸다. 또한 배경이 되는 금정산의 능선과는 마치 수직·수평선과 어울려 삼중주를 연주하는 듯하였다. 수직·수평선은 자체적으로는 두 선끼리 생산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은 다 만들고 있는 듯 했다. 그에게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수직·수평선이 만나고 헤어졌다.

풍문에 의하면 고인이 된 도영주, 조성기 교수가 공동으로 설계했다는 설도 조교수가 설계했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나는 그 보다 오래전에 조교수로부터 그와 도영주 교수와의 공동작품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하여튼 나는 그를 참 좋아했다. 아마 학교에 있는 건물 가운데 지금은 폐허가 된 제1공학관을 제외하고는 내가 가장 많이 들락거리던 건물이었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또는 수업 중에 가끔 그가 잘 있나 하곤 힐끗 힐끗 쳐다보곤 하였다. 그의 수직·수평선은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것들이었다. 특히 무지개문에서



본 인문관(그 당시에는 본관이라 불렀음)과의 어울림은 절묘했다. 그들의 관계는 아마 한눈에 보아도 건축물로서 캠퍼스카풀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북극사에 다보탑과 석가탑 사이에 들어가면 묘한 느낌이 오는 것처럼, 인문관과 도서관 사이가 그랬다. 그 사이에 들어서면 느낄 수 있는 느낌은 데이트 중인 남녀사이를 가로지르는 느낌이 감지되었다. 나는 때때로 그 느낌을 즐기곤 했다. 내부는 오밀조밀하여서 기대고 싶을 정도로 아늑했다. 그 안으로 들어갔다. 적당한 크기의 로비에서 좌측으로 줄곧 가면 열람실이었다. 내부가 부분적으로 2층을 향해 열려있는 중2층이었다. 이 때문에 자갈자갈한 느낌을 받는다. 중2층으로 열람실로 만든 것은 센스 있는 처리다. 열람실 밖으로 나오면 좌측에는 참고열람실, 우측에는 남녀 화장실이 있었다. 그 화장실과 벽을 두고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에는 지하 서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었다. 사무실 우측에는 제2참고 열람실이 위치해 있었다. 열람실 밖을 내려다보면 주위의 울창한 아름드리 소나무들의 독야청청(獨也靑靑)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대학원을 진학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를 향한 내 미학적 사랑은 식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건물이 흰색인 지라 명암 또한 시시각각 아주 민감하게 변했다. 그 때 마다 그 건물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이제는 수직·수평선이 모여져서 3차원의 공간을 도처에 만들었다. 이제 그가 성숙해져서 3차원의 공간으로 보이는지, 보는 내가 그렇게 보는지 하여튼 3차원의 운동공간이 수직·수평선에 의해 생성·소멸되었다.

1979년 10월 15일 나는 그도 조국의 민주화에 일조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 그의 주출입구에서 폭포수처럼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다. 성난 폭포수였다. 그의 주출입구에서 화난 폭포수가 거세게 흘러나왔다. 이것이 교내 곳곳으로 번져나가더니 다시 운동장(지금의 넉넉한 티)에서 폭포수는 빙글빙글 몇 바퀴 돌더니만 무지개 정문 쪽으로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 폭포수의 힘은 무서웠다. 정문을 두고 대처하더니만 금방 정문을 밀고 폭포수는 거침없이 온천장 쪽으로 "유신철폐"를 외치면서 나아가더니만 그곳에서 밀고 당기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포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항이 벌어졌다고 한다. 17시 국기하강식을 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기저기서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유신철폐"라는 구호가 외쳐졌다. 우리 학교에서 벌어지던 장면들이 그대로 혹은 축소되어 목격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수직·수평, 3차원 운동에서 내려티브한 것까지 일순간에 보이는 것은 내가 눈이 열린 것일까? 그가 성장한 것일까? 그때 그가 3차원 운동에다 내려티브까지 동시에, 일순간에 그의 생애와 주변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그는 나에게 사물이 담혀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나는 이후 김기택의 시, "소"에서 그를 발견하곤 했다. 이제 알 듯하다, 눈에 다 들어 있는 말은, 소의 커다란 눈은 무언가 말하고 있는 듯한데/ 나에겐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소가 가진 말은 다 눈에 들어있는 것 같다// 말은 눈물처럼 떨어질 듯 그렇그렇 달려있는데/ 몸 밖으로 나오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 머리를 9하라!

## 카피라이터 정철과의 특별한 만남!



PNU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학내 구성원,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 27일 제1도서관 1층 구관 로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MBC애드컴을 시작으로 광고계에 첫 발을 디딘 후 기아 자동차, 하이트맥주, 프렌치카페 등 수많은 광고 카피를 만들어낸 카피라이터 정철이 초청되어 '머리를 9하라 - 머리를 가지고 노는 9가지 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부산대학교도서관 리더스북이 주최하고, 탑스피커즈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방대학 강연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김제동과 박휘순을 닮은 카피라이터'라는 재치 있는 인사말로 시작된 강연에서 정철은 굳어버린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9가지 발상전환 비법을 소개했다. '찾자, 떨자, 참자, 묻자, 놀자, 돌자, 따자, 하자, 영자'로 요약되는 9가지 노하우는 수년간 광고업계에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낸 저자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가 중고책 2권을 기부하면 정철의 신간을 선물로 주는 특별 이벤트가 마련되었으며, 강연 후반 참가자들이 미리 적어 놓은 메모를 현장에서 펼쳐보며 저자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4월, 『열녀의 탄생』 저자 강명관(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도서관에서는 2013년 하반기에도 저자와 독자가 책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에필로그 1

그를 만났다. 노란색 표지에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첫 만남은 그랬다.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글에 대한 호기심이 이어준 인연이다. 그의 책에는 다소 사회적 편향성이 들어있었다. 쫓대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이번 저자와의 만남이 '정철'이라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갔다.

'아홉 글자'로 머리를 9하기 위해 펼쳐지는 카피라이터 정철의 이야기는 아주 편안했다. 딱딱한 지식교과가 아닌 말랑말랑한 생각이야기였다. 틀을 깨는 상상력은 머리를 구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그 속에 있는 더 중요한 핵심은 '영자'라는 마지막 그녀. '모든 발상 전환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라는 말이었다. 재미와 감동, 그것은 단순하지만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5월 27일 도서관 로비에서 내 가슴에 가장 와 닿은 말이었다. 모든 명제에 '아니오'라는 의문을 품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이번만큼은 지구가 흔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네'를 외치고 싶었다. 약간의 책 홍보, 전체적인 머리사용법, 소금 같은 인생교훈을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전달받았다.

마지막에 정철 선생님 '만'의 시간이 끝나고 질문시간이 있었다. 그 때 '발상 전환'과는 대비되는 듯한 '있는 그대로 보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 그 두 개의 관점은 다르다는 답변을 받아서 시원하게 등을 긁은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았다. 내가 찾은 답은 '있는 그대로 보기'라는 것은 '갈혀진 틀'이 없다는 것으로 '발상전환'이 선택해야 할 '보기'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틀로 관심들을 규정하기 때문에 발상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머리를 9하는 것에 대한 정의, 노력, 요령, 자세, 철학들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남들이 '틀림'이 아닌 '다름'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철 선생님이 소개한 것처럼 '아이디어 노트'를 만드는 등 직접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우물쭈물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틀을 깨고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키워나가야겠다. 내 머리를 구하기 위해!

-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한이나 -



### 에필로그 2

"고정관념에 갇힌 당신의 뇌를 말랑말랑하게 바꿔드립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의 전국 릴레이 강연 - 부산대도서관 편

5월 27일 저녁 6시, 그날은 비가 왔다. 다 찰까?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열정의 부산 갈매기들은 강연장을 온통 물들였다. 지적과시를 위한 어려운 말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창의력의 실전결과물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머리를 개발하는 노하우를 풀어놓았다.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와! 하는 탄성... 탄성에 이은 탄성의 연속. 정철의 강연은 그랬다. 잠들어 있던 학생들의 뇌를 흔들어 깨웠고 학생들은 열정적인 리액션으로 화답했다. 서로가 하나 되는 완벽한 소통의 순간...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 직업을 가진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다. 좋은 강연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부산대도서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 탑스피커즈 대표 권태훈 -



### 문학예술자료관에서는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각이 만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도서관에서 구입한 자료는 이용에 필요한 각종 작업(분류, 편목)을 거친 후 주제 분야별로 도서관 내에 배치되어 이용자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시기적절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도서관 서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을 열어가는 사람들, 그 네 번째 만남. 문학예술팀과 함께한다.

### 01 문학예술팀, 궁금해요?

문학예술팀은 언어학, 문학, 예술, 스포츠와 관련된 주제 분야의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의 소장, 관리, 이용 지원은 물론 연구와 학습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취업지원자료 코너, EU/UN/IMF에서 발간한 국제기구자료 코너, 지도 자료 코너, 미국대사관 공보원과 자료 공동파트너십 구축으로 운영 중인 Window on America 코너 등 별도의 특화된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우의 도서관 자료 이용편의를 위해 장애우 전용열람석과 검색대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02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문학예술/취업과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여 구입하기 위한 자료수서업무를 비롯하여 구입자료 및 반납자료의 서가배열을 통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료이용 중 파손/훼손된 자료의 신속한 수선과 재구입 처리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자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포메이션데스크의 현장사서는 이용자들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질의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학습이나 연구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학술상담 서비스의 경우 당일 답변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자료조사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2012년부터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과별 맞춤형 학술정보서비스를 위해 문학예술과 관련된 20개 학과(인문대학 12개, 예술대학 7개, 스포츠과학부)를 대상으로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http://libguides.pusan.ac.kr>) 제작과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각종 교육 서비스(도서관이용, 참고정보원 이용, 전자자료 이용안내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03 '사서'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사서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때 존재 이유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용자들이 의뢰한 정보를 몇 시간 혹은 며칠의 어려운 검색 과정을 거쳐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 내고, 원문을 찾아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을 때, "신속히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지만 이용자들로부터 듣는 이런 한마디에 '사서'라는 직업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 04 향후 계획은?

문학예술자료관을 여유가 있고 안락함이 있는, 문학과 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특색 있는 자료관으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까지 취업지원 자료를 재배치하고 열람테이블과 소파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도서관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취업지원자료가 이전되는 2013년 12월 이후에는,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하여 확보되는 공간에 더욱 여유롭고 안락한 문학예술자료관만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 대출도서 기한 전 반납

- 리콜제 -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책인데 이미 누군가 대출 중인가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반납기한일을 확인해보니 아직 한참 남았군요. 딱 하루만, 잠시만 보면 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5월 1일부터 '대출도서 기한 전 반납(리콜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출도서 기한 전 반납(리콜제)이란?

이미 대출중이 도서를 다른 이용자가 반납 요청하여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대상 및 한도

- 각 주제자료관 단행본 자료실에 1책만 소장된 외국도서
- 최초 대출일로부터 대출기간의 1/2이 경과된 도서
- 1인당 리콜제 신청한도는 2책으로 1책당 1명만 신청 가능

### 이용방법

#### ▶ 신청자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로그인 → 소장자료검색 → 상세보기 → 도서상태가 대출 중 → 부가기능 **R** 클릭

- 신청자가 검색, 신청 → 통보 후 3일 이내 대출 → 5일간 이용가능
- 신청 취소 : 도서관 홈페이지 My Library에서 직접 취소
- 신청 시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이용자는 신청 불가

#### ▶ 제공자

- 리콜제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완전반납 또는 임시반납 해야 함
- 임시반납의 경우 도서회수 후 남은 대출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음
- 리콜제가 신청된 자료는 대출연장 불가

※ 완전반납 : 원대출자가 반납 완료  
임시반납 : 원대출자가 재대출을 원할 경우, 리콜제 신청자가 대출 후 5일 이내 반납하여 원대출자가 다시 대출

### 유의사항

- 자료 도착 통보 후 3일 이내에 대출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 리콜제 요청 도서를 1회 이상 대출해 가지 않거나, 리콜제 요청 허용자가 7일 이내에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6개월간 리콜제 신청 불가
- 리콜제 신청자가 도서대출 후 반납기한(5일)을 넘기면 1일 2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6개월간 리콜제 신청 불가

### e-mail, SMS 발송

- 리콜제 신청 시 제공자(기대출자)에게 반납요청 알림
- 요청한 도서가 반납되었을 시 신청자에게 반납되었음을 알림
- 임시 반납자에게 재대출 가능일 알림

### 문의

제1도서관 대출열람팀 051-510-1301

# 국제기구와 국제법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본다

## - UN/EU자료 -

제1도서관 2층에 위치한 국제기구자료 코너는 UN/EU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사무국에서 간행하고 있는 EU자료와 UN에서 간행하고 있는 각종 회의록, 연감, 통계자료, 보고서 등을 소장하고 있다.



## UN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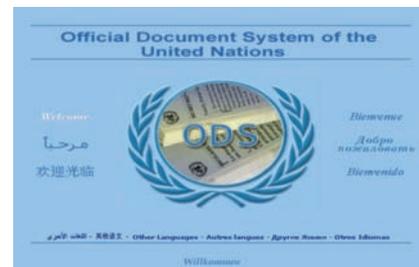
우리 도서관은 1998년 4월 UN본부로부터 기탁도서관으로 지정, 2001년 1월 완전기탁 도서관으로 전환, 지정되었다. UN자료란 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UN본부의 각 보조기관, 관련기구, 전문기구, 위원회 등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UN은 1945년 창설 이래로 UN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각종 형태의 출판물에 수록하여 관심 있는 회원국 이용자에게 UN기탁도서관 및 산하 기관들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UN출판물은 국제기구로서의 UN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어 오고 있다. UN은 창설 초기부터 각종 활동과 정책들을 문서화하고, 각종 법규와 기구 활동에서 생산된 수 천 종의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도서관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 국내 UN기탁도서관

고려대학교(1957년), 국회(1979년), 서울대학교(1992년), 연세대학교(1994년), 국립중앙도서관(1997년), 부산대학교(1998), 전남대학교(2000년), 부산동해대학교(2001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2003년), 인천미추홀도서관(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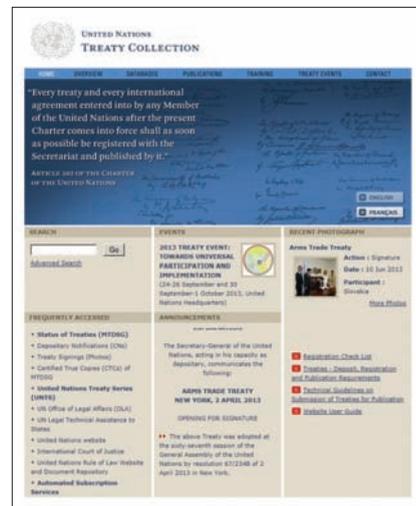
### UN ODS(UN Official Document System)

- UN의 Full-text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 1946년 이후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등의 공식언어로 된 모든 resolutions과 decisions 제공
- 1993년부터 뉴욕에서 생산된 300,000건 이상의 문헌들과 제네바에서 생산된 문헌, 이사회 초고, 출판전 자료, 미기탁자료의 Full-text 검색 가능



### UNTC(Unt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 각종 조약집을 웹 버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전자자료 검색 > 국외학술DB > UN Archives, UNdata(UN Common Database) 참고

## EU자료

우리 도서관은 2006년 11월 EU 자료기증 협정 체결을 맺었으며, 우리 대학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회도서관이 EU자료 기탁센터로 지정 되어있다.

EU자료 코너는 특히 유럽법 분야가 특화되어 EU의 활동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코너이다. EU의 모든 법률과 법률이행을 위한 각 기관의 활동을 수록한 'Official Journal'과 위원회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문서가 수록된 'Com Document' 정보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EUR-Lex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자료현황

#### Official Journal

5개 시리즈로 나누어 출판되며 각 시리즈가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L series (legislation)</b>	EU법규로서 규칙, 지침, 결정, 권고와 의견, 협정, 협약, 예산 결의 등
<b>C series (information and notices)</b>	EU 각 기관의 활동사항 및 2차적 범용 수록물
<b>S series (supplement)</b>	각종 계약이나 입찰정보
<b>Annex</b>	의회 개회동안 토의되는 인건에 대한 전문 수록
<b>Index</b>	월간, 연간 색인

### Com Document

법률안자료, 백서류, 시책보고서 등을 담고 있으며, 문서번호가 연도와 연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8년 이전에는 (97)123의 형태이다가 1998년부터는 (1998)123의 형태를 띄고 있다.

### Legislation

EU법은 설립에 관한 조약과 부속서, EU 각 기관이 제정한 법규, 회원국 국내법 및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Case-Law

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수록되는 문서는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일명 "European Court Report(ECR)" 이며, 1989년에 설립된 제1심재판소와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C'와 'T'로 구별한다.

### EUR-Lex

- 유럽연합법, Official Journal, 조약 및 법규, 판결문 및 법률안 등을 Full-text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 국제기구자료 이용 안내

- 위치 : 제1도서관 2층 UN/EU자료 코너
- 자세한 이용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 자료 열람 및 복사 가능, 대출 불가
-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 도서관안내 > 주제자료관 > 기타자료관

문의 | 제1도서관 문학예술팀 051-510-1814

효원인 추천도서 전시

# 효원 감동나눔 책읽기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좋은 책을 친구, 선후배간에 함께 읽고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건 어떨까?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제1도서관 1층 로비에서 '효원 감동나눔 책읽기' 전시가 열렸다. 이번 전시는 2012년 '효원인이 친구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을 통해 선정된 추천도서 98선을 소개하며 책 읽는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효원인이 추천한 책은 철학, 사회과학, 예술, 문학, 역사 등 주제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추천서와 함께 자유롭게 읽어 볼 수 있도록 전시되었다.

앞으로도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계의 아름다움**

데이비드 켈러터 | 현준만 역 | 해냄 | 1999 | 233 p.

융합의 시대에 걸맞은 인문학적 기계학의 지식이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리나(정보컴퓨터공학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최인철 | 21세기북스 | 2007 | 213 p.

우리는 타인을 우리 식대로 판별하는 모순과 자기 중심성의 프레임에 대하여 '리프레이밍'을 설정해야 한다.

김규은(지리교육과)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양희승 역 | 중앙 books | 2007 | 354 p.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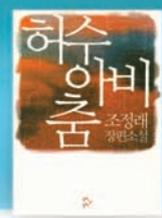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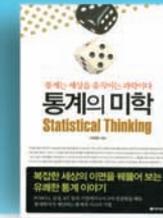
양재평(법학과)

**통계의 미학**

최재호 | 동아사이 | 2007 | 305 p.

통계 자료도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가 곧 함정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박민성(화학과)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 정영목 역 | 창마래 | 2011 | 312 p.

공간과 장소, 건축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의미가 마음속에 탄탄하게 자리잡지 못한다.

김동우(경제학부)

**허수아비춤**

조정래 | 문학의문학 | 2010 | 444 p.

한국 경제의 불균형과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며 우리의 시각을 뜨게 만든다.

신준섭(수학과)

**체 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에 | 김미선 역 | 실천문학사 | 2008 | 715 p.

나에게 '체'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말아 아닌 몸으로 실천하는 혁명가로 다가왔다.

김도연(대기환경과학과)

**근대를 말하다**

이덕일 | 역사이야기 | 2012 | 371 p.

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대로써 우리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여야만 또 다른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방정민(정보컴퓨터공학부)

## 'PNU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은 계속됩니다

### PNU 감동공유!

감동 깊게 읽은 책을 추천해주세요.

| 참가대상 | 모든 효원인

| 공모내용 |

- 추천대상 도서 : 판타지, 만화, 선정적 도서, 무협지 등을 제외한 모든 도서
- 응모방법 : 부산대학교 '책 읽는 대학' (<http://reading.pusan.ac.kr>)  
→ '책 이야기' → '함께 읽고 싶은 책'란에 온라인으로 응모
- 모집기간 : 2013. 5. 1.(수) ~ 6. 30.(일)
- 우수추천서 발표 : 2013. 7월 중
- 우수추천서 시상 : 50명, 도서상품권(1만원) 지급(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가능)
- 제출 양식
  - 분량 : A4 용지 1매 이상 3매 이하(표지 제외)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발행년도 | 추천이유 순으로 작성
  - 글자모양 : 휴먼명조, 글씨크기 12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80%
  - 기타 : 비밀글 설정 및 소속, 학번, 연락처 기재 필수

관람 후기

### 감동나눔 한 줄

- 책의 숲에서 방황하는 나에게 길잡이가 되어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큰 도움이 됐어요.
- 한동안 책을 놓고 있었는데 다시 마음껏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 책을 나누는 것 감동을 공유한다는 것 매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책들 많이 얻어갑니다.
- 같은 책을 시간이 흐른 후에도 본다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느 구절을 읽을 때, 그때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거나 또는 글을 읽고 자신의 느낌을 적어 보는 것은 자신의 시각을 살펴 볼 수 있지요. 또한 글쓴이의 의도와 생각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에 학생들이 좋았던 느낌의 책들을 시간이 흐른 후 책장에서 다시금 펼쳐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대학도서관 교육부 장관상 수상



도서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2013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제주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부산대도서관은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공유·유통 기여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학술정보 공유·유통 기여도 평가는 학술 정보

공유·유통의 핵심 3대 사업인 종합목록, 상호대차, 원문공유로 나누어 각 사업별 평가를 통해 최다득점 대학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A, B, C 3개 그룹으로 나뉘 실시하며, 부산대도서관은 소속 A그룹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대학도서관 발전 유공자 시상에서 부산대도서관 장영남 사서가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 교육부 장관 개인 표창자로 선정됐다. 장 사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도입,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제안·운영 등 새로운 유형의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대학도서관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10

도서관 무박2일 독서캠프 개최



초여름 밤 도서관에서 친구, 동료와 함께 밤 새워 책 읽는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도서관 무박2일 독서캠프'가 6월 21일(금) 19시부터 6월 22일(토) 6시까지 제1도서관 인문사회과학자료관(북카페)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1부 저자와의 만남, 2부 밤샘독서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13년 부산원북원 선정도서 『가족의 두 얼굴』 최광현 작가가 초청되어 강연을 펼칠 예정이며, 2부 밤샘 독서에서는 2012년 회원인 추천도서 98선, 부산대학교선정 고전 99선 등 밤샘 독서대상목록 중 1권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책을 읽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공지사항 참조.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체험을 통해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이용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309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7월 5일(금)부터 8월 30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제1도서관 1층(구관) 세미나실에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으로의 여행'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소통과 치유, 성장의 아픔, 자기존중 등

다양한 주제로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오는 6월 28일(금)까지 20명을 모집하며, 이메일(ksokim@pusan.ac.kr)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pulip.pusan.ac.kr) 공지사항 참조.

도서관은 지난 2006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2012년부터는 지역주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내 북카페에 설치된 '독서치료자료' 코너와 연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 제1도서관 인문사회팀 051-510-1863

우수 논문 투고 비법 워크숍 개최



주요 저널에 우수 논문을 투고하는 비법에 관한 워크숍이 6월 11일 호원산학협동관 101호에서 교수, 연구진, 대학원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엘스비어 출판사(Elsevier Publisher)가 주최하고, 부산대학교도서관이 주관한 이날 워크숍은 엘스비어 출판사 본사에서

응용수학 분야 15개 저널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Valerie Teng-Broug의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주요 저널에 우수 논문을 투고하는 방법에 대해 학문 전반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논문작성에 있어서 단계별 전략 및 유의점 등이 상세히 설명되었다. 강연 후에는 실제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진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최근 연구실적평가의 중요 기준이 되고 있는 Scopus 활용교육 또한 함께 진행되었다. 도서관에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내 연구진들의 논문작성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하며, 향후 다양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제1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1805

도서관 운영세칙 개정

도서관에서는 '전자책(e-Book) 대출'서비스와 '대출도서 기한 전 반납(리콜제)' 서비스를 위해 5월 1일부터 도서관 운영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3조(대출책수 및 기간)** 도서관규정 제19조 ①에 의한 인쇄본의 이용자별 대출책수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현행과 동일)
- ② (신설) 전자책의 대출책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내부이용자
    - 가. 과점수강생 : 5책 이내 7일
    - 나. 대학자체 채용 직원 및 연구원 : 5책 이내 14일
  - 휴학생 : 5책 이내 7일
  - 외부이용자
    - 가. 우대회원 : 5책 이내 14일
    - 나. 회원회원 : 5책 이내 7일
    - 다. 일반회원 : 5책 이내 7일
- 제14조 (반납연기)** ① 현행과 동일
- ② (신설) 대출종인 도서를 다른 이용자가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 대출도서 기한 전 반납 요청을 할 수 있다.

문의 | 제1도서관 대출열람팀 051-510-1800

기부의 이름으로 도서관에 변화를 선물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도서관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도서관이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는 그곳이 단지 책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사람과 책이 만나고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대학도 교육기관 최고의 걸작품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서관'을 그려봅시다.

도서관 시설과 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준비하는 지금, 당신의 뜻있는 후원을 기다립니다.

도서관에 큰 변화를 안겨다 줄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부의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의 여백, 소중히 채워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PNU 도서관친구들'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제1도서관 기획전산팀 051-510-1810

- ①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연세·삼성 학술정보관'
- ② 이종문 암백스그룹 회장의 기부로 설립된 KIST '이종문 도서관'
- ③ 성암 영홍섭 회장의 기부로 마련된 조선대학교도서관 '성암인터넷실'
- ④ '서울대 도서관친구들' 명예의 전당
- ⑤ 신한은행 기부로 명명된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신한로버'

